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1.11(목) / 총1매(본문1)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당자	- 과장 박병석, 사무관 조태영, 주무관 허동혁 ☎ (044) 201-3542, 3543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‘녹슬고 깨지고 기울고 골병 든 타워크레인 수두룩’ 보도 관련

- ☐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고용부, 지자체, 공공기관, 검사기관, 노조 등과 합동으로 전국 500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성에 대해 일제점검 중에 있습니다.(‘17.12.27.~’18.1.19.)
- ☐ 기사의 문제 지적과 관련해서는 타워크레인 노조와 시민안전감시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문제의 현장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며, 구조물의 균열, 부식 등에 대해서도 더 면밀히 검사토록 하겠습니다.
- ☐ 타워크레인 유압실린더가 폭발한 장비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종 수시 검사를 진행 중이며, 개선된 유압실린더로 구조변경 하도록 조치했고 지자체와 건설사에 해당 기종의 사용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.(‘18.1.5.)
- ☐ 허위연식 등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고, 먼저 1차로 적발한 109대에 대해 지자체에 등록말소를 요청하였으며(‘17.12.8.) 최종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.
- ☐ 한편, 타워크레인 연식제한, 부품인증제, 허위연식 등록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, 수입장비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제작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기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(‘17.11.16.)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일보 1.11.) >

◆ 녹슬고 깨지고 기울고... 골병 든 타워크레인 수두룩

- 수입 등록 절차 허술, 볼트와 너트를 수차례 재활용, 부품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하는 등의 경우도 발생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조태영 사무관(☎ 044-201-35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